2010 희망일기

⑤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신현욱·김하림·김한솔

2015 U대회 자원봉사자 참여 "광주 알림이 역할 가슴 설레요"

5대1 경쟁률 뚫고 시범교육생 뽑혀

광주 역사·문화 등 지식 쌓아야죠

"광주를 잘 알리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소개하기 위해 지역에 관한 역사나 문화 등 다양한 지식도 쌓아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광주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시범교육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현욱(16·서석중 3)군, 김하림(16·주월중 2)양, 김한솔(14·문성중 1)군 등의 각오가 무척이나 다부졌다. 5.15 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육생으로 뽑힌 이들은 올해 봄 시작될 본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 연수에 나선 아버지를 따라 1년 동안 애리조나주에서 살았던 김하림 양은 여전히 영어는 '넘기 어려운 산'이어서 교육이 시작되기만을 벼르고 있다.

"4박5일간 원어민 교사와 합숙하며 하루 10시간씩 모두 50시간을 영어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외국에서 배운 영어실력을 다듬고, 살고 있는 광주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외국인 친구까지 사귈 수 있는 1석3조의 기회를 꼭 붙잡고 싶었어요"

신현욱 군은 광주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도시들이 오랜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광주 역시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이 같은 분야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

신군은 "광주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 시민들은 거리에서 침 안 뱉기, 쓰레기 안 버리기 등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제가 광주를 대표해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2015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김한솔 군은 "아직 구체적인 직업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광주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양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미국에서 1년 동안 거주했던 김군은 이번 영어스쿨을 통해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와 형·누나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고, 여행도 하며, 은퇴한 뒤 광주에서 살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자원봉사자로 꼭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광주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시청을 찾은 김하림 양, 김한솔·신현욱 군(왼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들은 한결같이 "광주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중심도시다운, 유서 깊은 고장다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국제도시광주'를 위해 가슴 부푼 중학생의 큰 꿈을 펼쳐줄 2010년이 시작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U대회 자원봉사자 2만명 육성

광주시, 영어스쿨 대학생·시민 등 참여 확대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가능한 학생, 일반 시민 등 2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8일 끝나는 시범교육을 통해 영어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광주시교육청, 각 대학, 광주영어방송 등 각 기관들의 자문을 받아 오는 2월까지 영어스쿨 본교육 커리큘럼 등 전체 교육 매뉴얼을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6일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매뉴얼 교재 제작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갖고,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청소년과 대학생, 시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어스쿨을 단계적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2015년 대학생이 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영어스쿨은 시 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과 방학집중캠프에서 초·중·고급 3단계 수준으로 진행하며, 이와 동시에 심화단계의 영재교실을 대학 언어교육기관에 개설해 핵심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폭설, 시민의식 실종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광주 주택가 골목길 등 빙판 … 낙상사고 잇따라

폭설 때 보행불편과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 각 자치구가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낮고 강제성도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연일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낙상 등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폭설로 인한 보행사고는 대부분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소극적인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6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부터 눈이 쌓이면서 광주지역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에서 눈에 미끄러져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낙상사고가 10여 건 이상 접수됐다.

4일 저녁 8시30분께 서구 염주동 인근 주택가에서 정모(12)양이 미끄러지면서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어 밤 9시50분에는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인도에서 이모(85) 할머니도 눈길에 넘어져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눈이 그친 5일 오후 4시15분께에도 광산구 하남지구 아파트 주변에서 나모(19)군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 등 눈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6일 현재에도 이면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많아 낙상사고도 크게 늘 전망이다.

이 같이 낙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원인은, 각 자치구에서 10여 명 수준으로 구성한 제설작업팀이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간선도로 위주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어 사실상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 이면도로 등은 쌓인 눈이 빙판으로 바뀔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각 자치구는 이러한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눈을 주민 스스로 치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잇따라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강제성도 없어 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치우지 않는 이상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며 "낙상사고를 분석해보면, 눈이 그칠 때 시민들이 집이나 점포 주변을 조금만 쓸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까지 강추위

광주·전남 최저 영하 10도 … 서해안엔 눈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소한'(小寒) 폭설은 그쳤지만,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으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된다"면서 "영광·함평 등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1~5㎝의 눈이 더 내린 뒤 오전에 그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3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번 추위는 8일 오후부터 서서히 풀려 평년기온을 되찾은 뒤 11일부터 또다시 동장군(冬將軍)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루 종일 영하의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빙판길로 변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폭설 탓 신호위반 땐 과태료 부과 않기로

경찰청은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교통신호나 정지선을 못봤거나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한 것으로 조사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위반사실통지서 하단에 적혀 있다. /연합뉴스

나원참

〈7998〉 김종두

박근혜 비방 근령씨 남편 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장갑 때문에…DNA 검사 범죄 들통

쌍나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경찰의 DNA 검사를 통해 3년 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들통.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9)씨는 지난 2006년 10월 부산시 중구 영주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이씨는 범행 중 끼고 있던 장갑을 제과점에서 200여m 떨어진 공사장에 버리고 달아났는데, 당시 경찰은 이씨의 장갑을 발견하고 DNA를 채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등 전국을 돌며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이씨의 DNA와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DNA를 대조한 결과, 이씨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